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 소비, 투자 전부문 증가

- 2007년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계절조정) 2.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4.3% 증가하여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9.8%, 1.3%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부품(26.2%)의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파업이 있었던 자동차(38.1%)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하였음(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하여 지난달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시현됨. 반면, 숙박·음식업, 통신업 등은 지난달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음(그림 2 참조).
 - 7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승용차의 판매가 크게 늘고, 컴퓨터,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고, 향후의 경

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5			2006						2007		
		3/4	4/4	연간	1/4	2/4	7월	3/4	4/4	연간	1/4p	2/4p	7월p
생산	산업생산	7.1	10.3	6.3	12.8	11.5	4.9	11.3	5.2	10.1	3.3	7.1	14.3(2.1)
	제조업 생산	7.4	10.4	6.2	13.4	12.1	5.2	11.8	5.6	10.5	3.4	7.1	14.8(2.2)
	출하	6.4	8.6	5.6	9.7	9.0	1.8	9.2	3.8	7.8	4.4	7.2	14.9(2.9)
	수출	10.1	13.5	10.5	13.1	14.2	11.3	15.7	5.6	11.9	6.7	10.0	17.4(0.9)
	내수	3.5	4.6	1.8	7.1	4.9	-5.8	3.8	2.2	4.5	2.7	4.9	12.6(-4.0)
	서비스업 생산	5.5	5.9	3.6	6.2	5.4	1.8	4.5	4.8	5.2	5.6	6.4	9.8(0.7)
소비	소비재 판매	4.7	6.9	4.1	5.3	6.1	-0.8	2.9	4.5	4.7	7.1	5.3	9.8(1.6)
투자	설비투자	1.1	7.0	6.3	6.2	6.7	3.9	11.8	5.1	7.4	11.3	12.1	1.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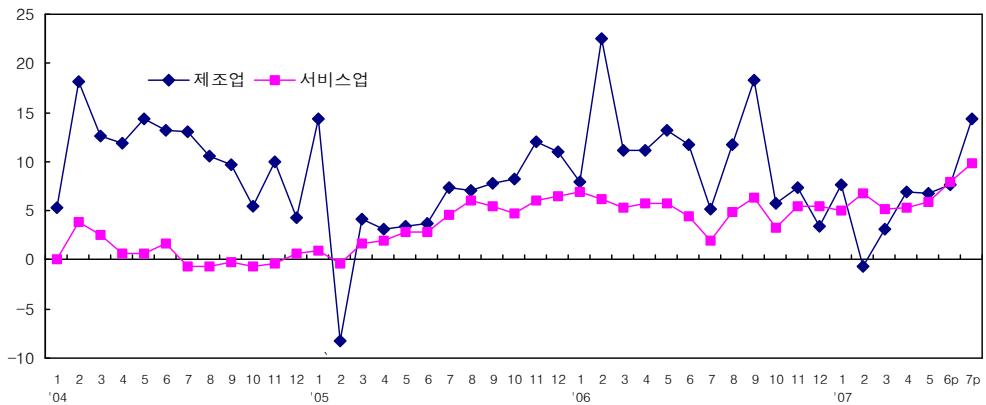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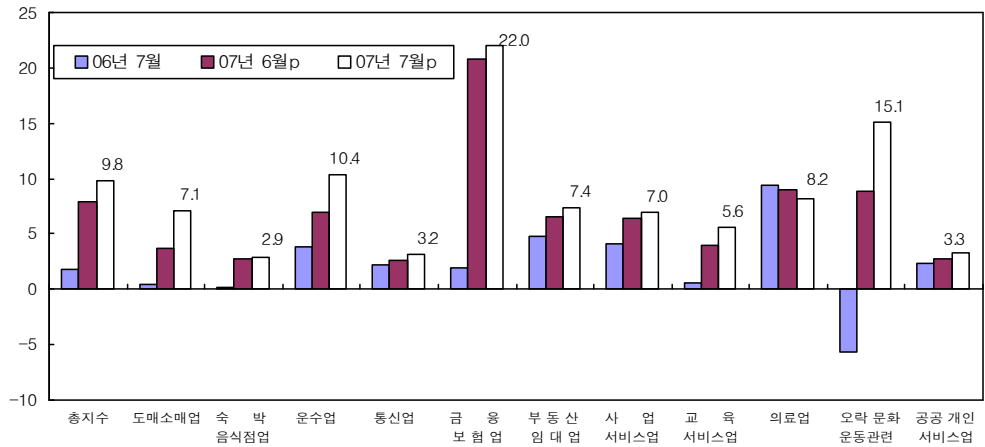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7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7. 8.

_____, 『2007년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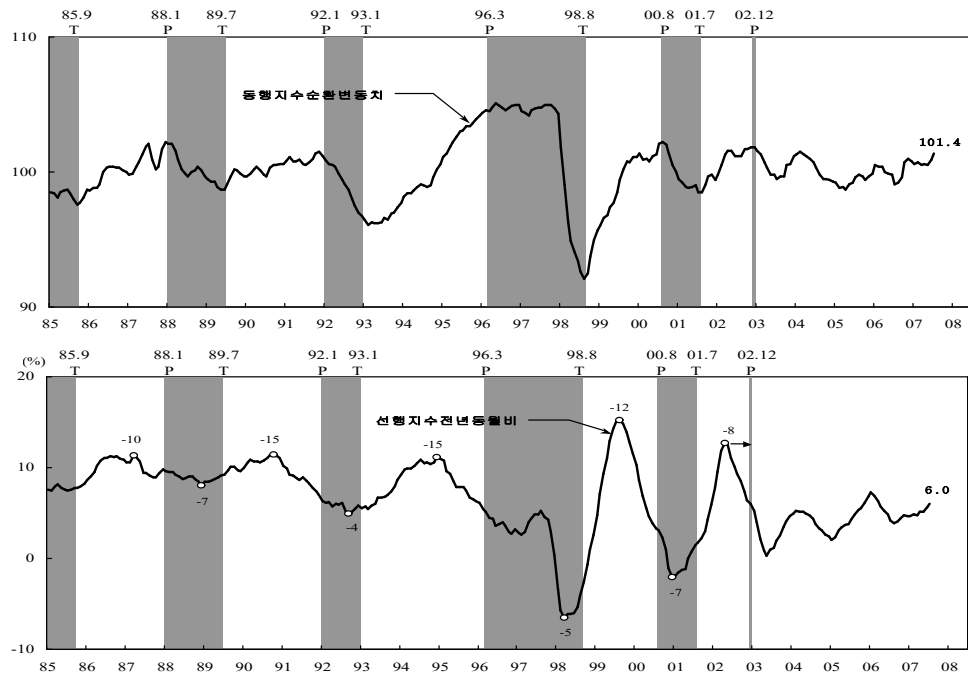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7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7. 8.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실업률 감소

- 2007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5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5천 명(1.1%)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86천 명으로 156천 명(1.1%)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259천 명으로 119천 명(1.2%) 증가함.
- 2007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74.8%)이 전년동월과 같았으며, 여성(51.0%)은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함.
 - 2007년 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과 정체를 보이다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됨 (그림 4 참조).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참가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3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6%포인트 하락한 93.5%를 기록함(특징 1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경제활동인구	23,492 (1.2)	24,225 (0.9)	24,113 (0.9)	24,270 (1.1)	24,084 (1.0)	23,692 (0.9)	24,489 (1.1)	24,545 (1.1)
참가율	60.9	62.5	62.1	62.5	61.9	60.8	62.6	62.6
취업자	22,577 (1.5)	23,409 (1.2)	23,314 (1.2)	23,447 (1.1)	23,303 (1.2)	22,841 (1.2)	23,698 (1.2)	23,750 (1.3)
고용률	58.5	60.4	60.0	60.4	59.9	58.6	60.6	60.6
실업자	915	816	799	823	780	851	791	795
실업률	3.9	3.4	3.3	3.4	3.2	3.6	3.2	3.2
비경제활동인구	15,101 (2.1)	14,505 (1.6)	14,722 (1.3)	14,544 (1.5)	14,807 (1.2)	15,305 (1.4)	14,647 (1.0)	14,66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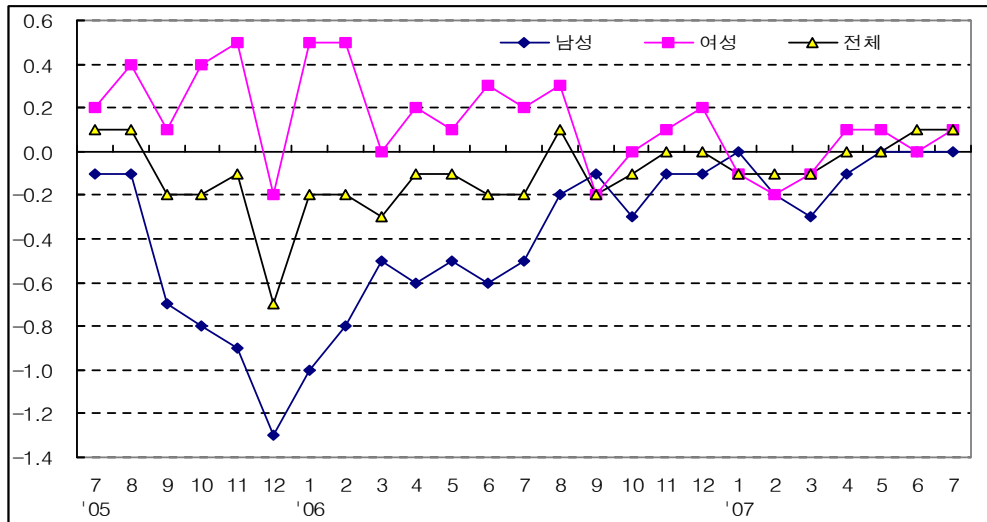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7년 7월 고용동향』, 2007. 8.

[그림 4] 성별 참가율 증감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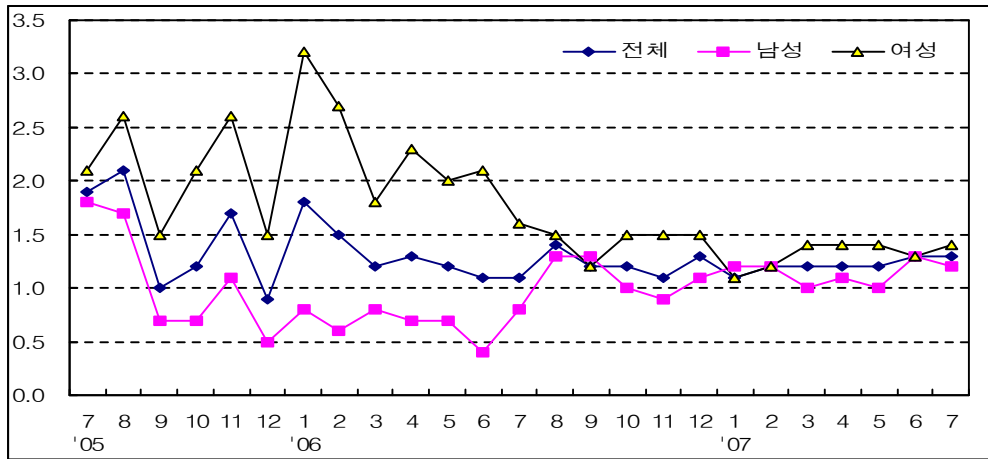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7년 7월 중 고용률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2.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49.7%로 0.3%포인트 증가함.
- 2007년 7월 중 취업자는 23,7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3천 명(1.3%)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7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1.2%), 여성 취업자는 9,9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천 명(1.4%)이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 증가세를 보임(그림 5 참조).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30대 이하에서 감소하였음.
- 2007년 7월 중 실업자는 7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천 명(-3.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2.0%)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6.1%)이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3.6%를 보였고, 여성이 0.2%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함.
- 2007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6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천 명(0.8%) 증가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8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8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 명(0.6%)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감소함.
- ※ 구직단념자 추이: 124천 명(2006. 7) → 93천 명(2007. 4) → 99천 명(2007. 5) → 93천 명(2007. 6) → 104천 명(2007. 7)

◆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7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98천 명, 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61천 명, 2.6%), 건설업(4천 명, 0.2%)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천 명, -0.4%), 제조업(-53천 명, -1.3%), 농림어업(-80천 명, -4.1%) 등에서는 감소함.
-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됨(그림 6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 명, %)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전 산업	22,577 (1.5)	23,409 (1.2)	23,314 (1.2)	23,447 (1.1)	23,303 (1.2)	22,841 (1.2)	23,409 (1.2)	23,750 (1.3)
농림어업	1,492 (-2.2)	1,952 (-3.2)	1,937 (-1.4)	1,947 (-2.9)	1,757 (0.2)	1,450 (-2.8)	1,952 (-2.7)	1,867 (-4.1)
제조업	4,189 (-1.7)	4,181 (-1.8)	4,143 (-1.4)	4,180 (-1.2)	4,157 (-1.5)	4,138 (-1.2)	4,181 (-1.3)	4,126 (-1.3)
건설업	1,726 (2.0)	1,904 (0.3)	1,849 (0.7)	1,851 (-1.0)	1,862 (1.6)	1,772 (2.7)	1,904 (1.6)	1,855 (0.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00 (-0.6)	5,776 (-0.3)	5,734 (-0.8)	5,806 (-0.6)	5,740 (-1.2)	5,743 (-1.0)	5,776 (-1.0)	5,781 (-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056 (5.1)	7,256 (5.1)	7,298 (4.6)	7,306 (4.9)	7,394 (4.2)	7,357 (4.3)	7,256 (4.8)	7,704 (5.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299 (4.4)	2,323 (4.0)	2,336 (3.7)	2,339 (3.9)	2,373 (3.4)	2,363 (2.8)	2,323 (3.3)	2,400 (2.6)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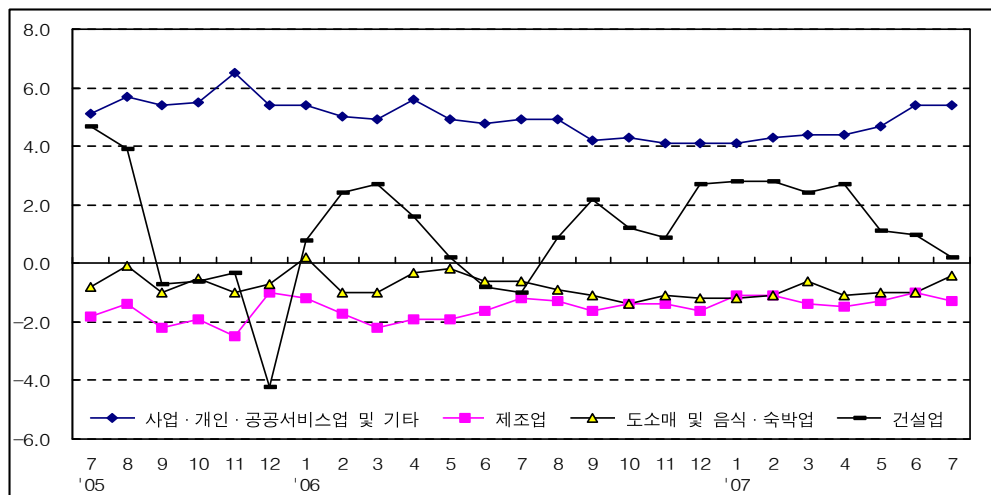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7년 7월 고용동향』, 2007. 8.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큰 폭의 증가

- 2007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6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 명(-1.3%)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1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6천 명(2.6%)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546천 명, 6.7%)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64천 명, -1.2%)와 일용근로자(-75천 명, -3.3%)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가 7월에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감소세로 반전됨(그림 7 참조, 특징 2 참조).
- 2007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3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6천 명(44.4%)이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098천 명으로 1,025천 명(-5.1%)이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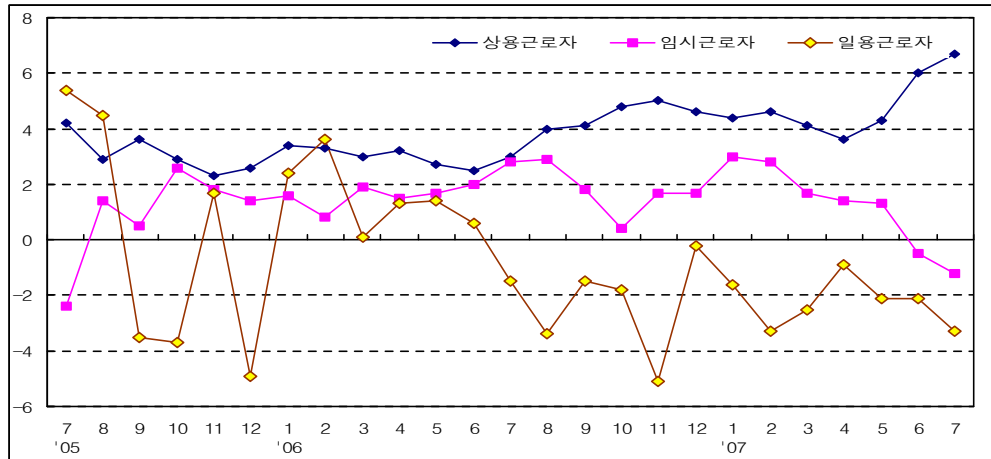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전 체	22,577 (1.5)	23,409 (1.2)	23,314 (1.2)	23,447 (1.1)	23,303 (1.2)	22,841 (1.2)	23,698 (1.2)	23,750 (1.3)
비임금근로자	7,359 (-0.4)	7,722 (-0.6)	7,759 (-1.1)	7,727 (-1.1)	7,561 (-1.5)	7,199 (-2.2)	7,637 (-1.1)	7,624 (-1.3)
자영업주	6,012 (-0.2)	6,197 (-0.2)	6,208 (-1.0)	6,190 (-0.9)	6,121 (-1.0)	5,895 (-1.9)	6,139 (-0.9)	6,145 (-0.7)
무급가족종사자	1,347 (-1.6)	1,525 (-2.4)	1,551 (-1.3)	1,537 (-1.8)	1,440 (-3.6)	1,304 (-3.2)	1,498 (-1.8)	1,479 (-3.8)
임금근로자	15,219 (2.4)	15,687 (2.2)	15,555 (2.4)	15,721 (2.3)	15,743 (2.6)	15,642 (2.8)	16,061 (2.4)	16,127 (2.6)
상용근로자	8,054 (3.2)	8,157 (2.8)	8,240 (3.7)	8,128 (3.0)	8,367 (4.8)	8,404 (4.3)	8,533 (4.6)	8,674 (6.7)
임시근로자	5,038 (1.4)	5,200 (1.7)	5,146 (2.5)	5,319 (2.8)	5,188 (1.3)	5,163 (2.5)	5,237 (0.7)	5,254 (-1.2)
일용근로자	2,127 (2.0)	2,330 (1.1)	2,169 (-2.1)	2,274 (-1.5)	2,188 (-2.4)	2,075 (-2.4)	2,291 (-1.7)	2,199 (-3.3)
36시간 미만	2,832 (-5.7)	2,520 (4.5)	3,204 (3.3)	2,987 (13.2)	2,686 (2.4)	3,014 (6.4)	2,564 (1.7)	4,312 (44.4)
36시간 이상	19,336 (2.9)	20,669 (1.0)	19,708 (1.2)	20,123 (-0.5)	20,367 (0.9)	19,383 (0.2)	20,906 (1.1)	19,098 (-5.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7년 7월 고용동향』, 2007. 8.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시간 미만 일한 자는 1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하였음.

※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추이: 136천 명(2006. 7) → 143천 명(2007. 4) → 133천 명(2007. 5) → 122천 명(2007. 6) → 138천 명(2007. 7)

◆ 30대, 50대에서 실업률 증가

○ 2007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와 50대에서는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

- 2007년 7월 중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0대(7천 명, 3.7%)와 50대(17천 명, 22.9%)에서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28천 명, -7.2%), 40대(-23천 명, -15.2%), 60세 이상(-1천 명, -3.1%)에서 감소했음.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대졸 이상(11천명, 4.4%)에서 증가했고, 중졸 이하(-25천 명, -18.1%)와 고졸(-14천 명, -3.3%)에서 감소했음.

- 2007년 7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30대(3.0%, 0.2%p)와 50대(2.1%, 0.3%p)에서 증가했고, 청년층(15~29세)(7.6%, -0.4%p), 40대(1.9%, -0.4%p), 60세 이상(1.4%, -0.1%p)에서 감소했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0, -0.4%p), 고졸(4.0, -0.1%p), 대졸 이상(3.1%, -0.1%p) 전계층에서 감소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전 체	915(3.9)	816(3.4)	799(3.3)	823(3.4)	780(3.2)	851(3.6)	791(3.2)	795(3.2)
15~29세	396(8.4)	356(7.7)	349(7.5)	383(8.0)	356(7.8)	346(7.6)	330(7.3)	356(7.6)
30~39세	215(3.4)	177(2.8)	191(3.0)	178(2.8)	179(2.8)	216(3.5)	203(3.3)	184(3.0)
40~49세	166(2.6)	155(2.3)	151(2.3)	151(2.3)	136(2.1)	151(2.3)	130(1.9)	128(1.9)
50~59세	101(2.7)	85(2.1)	74(1.9)	73(1.8)	81(2.0)	96(2.4)	95(2.2)	90(2.1)
60세 이상	37(1.6)	43(1.6)	34(1.3)	39(1.5)	29(1.1)	42(1.7)	33(1.2)	37(1.4)
중졸 이하	158(2.9)	130(2.2)	130(2.2)	141(2.4)	126(2.2)	150(2.8)	112(1.9)	115(2.0)
고 졸	467(4.6)	404(4.0)	406(4.0)	427(4.1)	402(3.9)	426(4.2)	379(3.7)	413(4.0)
대졸 이상	290(3.7)	282(3.5)	263(3.3)	255(3.2)	253(3.1)	274(3.3)	300(3.5)	267(3.1)
취업무경험실업자	60	41	33	43	42	40	40	63
취업유경험실업자	854	776	766	780	739	810	751	731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 통계청, 『2007년 7월 고용동향』, 200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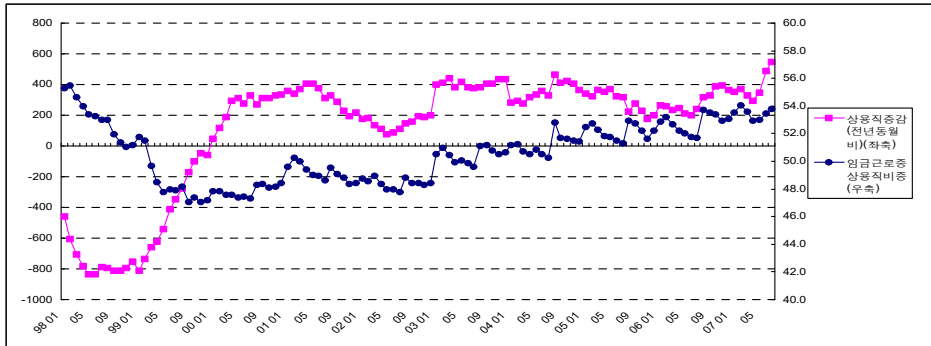
- 2007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79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 명(45.9%) 증가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31천 명으로 48천 명(-6.2%) 감소

[특징 1] 상용직 증가

- 2007년 7월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음.
- 산업별로 상용근로자의 규모 추이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59천 명, 제조업에서 135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115천 명이 증가했음.
 - 제조업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65.6%에서 69.4%로 증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25.1%에서 28.3%로 증가했음.

〈상용직 증감 추이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산업별 상용근로자의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 명,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2005. 7	14 (8.5)	2,414 (67.0)	400 (28.7)	727 (23.6)	1,124 (67.7)	3,199 (58.8)
2006. 7	17 (11.5)	2,333 (65.6)	409 (29.8)	778 (25.1)	1,162 (66.9)	3,415 (59.0)
2007. 7	20 (11.8)	2,467 (69.4)	460 (32.2)	893 (28.3)	1,146 (65.5)	3,675 (60.7)

주 : ()안의 수치는 산업별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 기간제근로자의 분포〉

(단위 : 천 명, %)

	2005. 7	2006. 7	2007. 7
상용직	885 (36.4)	901 (35.5)	1,142 (46.2)
계약기간 1년	611 { 69.0}	625 { 69.4}	773 { 67.7}
1~3년	193 { 21.8}	175 { 19.4}	228 { 19.9}
3년 초과	82 { 9.2}	101 { 11.2}	141 { 12.4}
임시직	639 (26.3)	728 (28.7)	734 (29.7)
일용직	909 (37.4)	906 (35.7)	594 (24.0)
전 체	2,433 (100.0)	2,535 (100.0)	2,470 (100.0)

주 : ()안의 수치는 기간제 중 각 종사상 지위의 비중.

{ }안의 수치는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계약기간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기간제의 규모를 살펴보면, 상용직 기간제가 901천 명(35.5%)에서 1,142(46.2%)천 명으로 증가한 반면, 일용직 기간제가 906천 명(35.7%)에서 594천 명(24.0%)로 감소해 기간제의 상용직화가 진행됨.
 - 일용직 기간제는 312천 명 감소했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기간제 고용이 1,368천 명에서 1,605천 명으로 증가했음.
- 근속기간별로 상용직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근속자가 1,334천 명에서 1,413천 명으로 증가했고, 1년 이상~2년 미만의 근속자도 1,049천 명에서 1,232천 명으로 증가했음.
 -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기존인력에서도 상용직이 증가했음.

〈근속기간별 종사상 지위〉

(단위: 천 명, %)

2007. 7	상 용	임 시	일 용	전 체
1년 미만	1,334 (16.4)	2,764 (52.0)	1,991 (87.6)	6,088
1~2년 미만	1,049 (12.9)	1,057 (19.9)	180 (7.9)	2,286
2년 이상	5,745 (70.7)	1,498 (28.2)	103 (4.5)	7,346
전 체	8,128 (100.0)	5,319 (100.0)	2,274 (100.0)	15,721
2007. 7	상 용	임 시	일 용	전 체
1년 미만	1,413 (16.3)	2,685 (51.1)	1,988 (90.4)	6,086
1~2년 미만	1,232 (14.2)	1,111 (21.1)	132 (6.0)	2,475
2년 이상	6,029 (69.5)	1,459 (27.8)	79 (3.6)	7,567
전 체	8,674 (100.0)	5,254 (100.0)	2,199 (100.0)	1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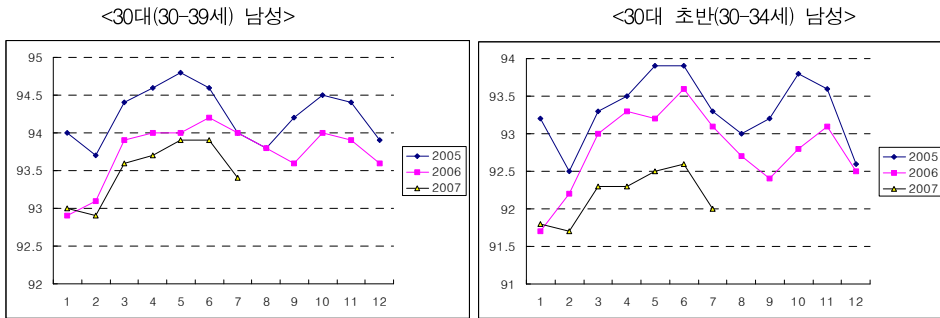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징 2] 3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 30대(30~3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으며, 30대 초반(30~34세)에서 1.1%포인트, 30대 후반(35~39세)에서 0.2%포인트 하락함.
 - 30대와 30대 초반 모두 참가율 감소폭이 2007년 이후 최대임.

<3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월별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2007년 7월 30대(30~39세)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71천 명으로, 그 중 46.7%인 126천 명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이고, 21.7%인 59천 명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임.
 - 특히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 82천 명(32.6%)에서 126천 명(46.7%)으로 증가했음.
- 2007년 7월 30대(30~39세)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1년 이상이라고 답한 자가 118천 명(46.9%)에서 131천 명(48.3%)으로 증가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고 답한 자가 40천 명(15.9%)에서 45천 명(16.6%)으로 증가했음.
 -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했음.
- 1년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유휴인력은 51천 명(39.2%)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이 증가했음.
- 30대 남성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91천 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고졸 이하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16천 명에서 34천 명으로 증가했고, 1년 미만인 자도 39천 명에서 54천 명으로 증가했음.

〈30대 남성 비경제활동 사유 1〉

(단위: 천 명, %)

	2006. 7			2007. 7		
	30~39세	30~34세	35~39세	30~39세	30~34세	35~39세
육아가사	18 (7.3)	8 (5.6)	10 (9.6)	9 (3.5)	4 (2.7)	5 (4.5)
통학	16 (6.2)	14 (9.8)	2 (1.5)	17 (6.4)	14 (8.8)	4 (3.1)
취업준비	64 (25.5)	48 (34.0)	16 (14.5)	59 (21.7)	43 (27.4)	16 (14.1)
유휴	82 (32.6)	37 (26.2)	45 (40.9)	126 (46.7)	66 (42.4)	60 (52.4)
기타	71 (28.4)	35 (24.4)	37 (33.5)	59 (21.7)	29 (18.7)	30 (25.9)
전 체	251 (100.0)	142 (100.0)	109 (100.0)	271 (100.0)	156 (100.0)	115 (100.0)

주: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이며,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이며, 유휴는 '그냥 쉬'임.

2) ()안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대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기간 분포〉

(단위: 천 명, %)

	2006. 7			2007. 7		
	30~39세	30~34세	35~39세	30~39세	30~34세	35~39세
0~3개월	26 (10.3)	14 (10.0)	12 (10.7)	40 (14.6)	23 (14.8)	17 (14.4)
3~6개월	36 (14.4)	18 (12.5)	18 (16.8)	22 (8.1)	10 (6.5)	12 (10.3)
6개월~1년	40 (15.9)	22 (15.7)	18 (16.1)	45 (16.6)	24 (15.4)	21 (18.3)
1년 이상	118 (46.9)	67 (47.5)	50 (46.1)	131 (48.3)	72 (46.3)	59 (50.9)
전직없었음	31 (12.5)	20 (14.2)	11 (10.2)	33 (12.3)	26 (16.9)	7 (6.1)
전 체	251 (100.0)	142 (100.0)	109 (100.0)	271 (100.0)	156 (100.0)	11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대 남성 비경제활동 사유 2〉

(단위: 천 명, %)

	2006. 7			2007. 7		
	1년 미만	1년 이상	전직없었음	1년 미만	1년 이상	전직없었음
육아가사	8 (7.5)	11 (9.1)	0 (0.0)	4 (3.6)	6 (4.2)	0 (0.0)
통학	4 (3.8)	7 (6.1)	4 (13.9)	5 (4.4)	8 (6.0)	5 (14.2)
취업준비	20 (19.5)	35 (29.9)	9 (28.7)	10 (9.7)	36 (27.7)	12 (36.8)
유휴	54 (52.6)	26 (22.4)	2 (6.1)	72 (67.8)	51 (39.2)	3 (8.3)
기타	17 (16.6)	38 (32.5)	16 (51.2)	15 (14.4)	30 (22.9)	14 (40.7)
전 체	102 (100.0)	118 (100.0)	31 (100.0)	107 (100.0)	131 (100.0)	33 (100.0)

주: <표 1>과 동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0대 남성의 학력별 전직유무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천 명, %)

2006. 7	1년 미만				1년 이상				전직없었음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계
육아가사	5	0	3	8	7	1	3	11	0	0	0	0
통학	2	0	2	4	3	0	5	7	3	0	1	4
취업준비	5	5	9	20	8	6	21	35	0	0	9	9
유휴	39	6	9	54	16	3	7	26	0	0	2	2
기타	10	2	5	17	27	4	8	38	16	0	0	16
전 체	61	13	28	102	60	14	44	118	20	0	11	31
2007. 7	1년 미만				1년 이상				전직없었음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계
육아가사	3	0	1	4	4	0	1	6	0	0	0	0
통학	2	0	3	5	4	0	4	8	3	0	2	5
취업준비	3	2	6	10	9	3	24	36	1	1	11	12
유휴	54	3	15	72	34	5	12	51	3	0	0	3
기타	7	1	8	15	20	4	5	30	11	1	1	14
전 체	68	6	33	107	71	13	47	131	18	2	14	33

주: <표 1>과 동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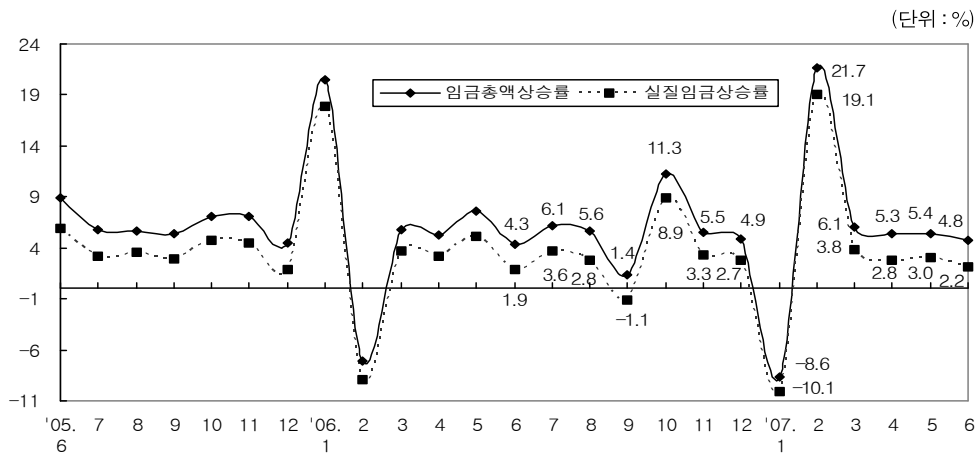
◆ 2007년 6월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대비 4.8% 상승

○ 2007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73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8%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4.3%보다 높은 수치임.
- 2/4분기 임금총액은 2,524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상승

- 1~6월(상반기) 임금총액은 2,575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상승
- 실질임금은 2.2% 상승
 - 2007년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2.2% 상승함.
 - 2/4분기 실질임금은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2.7%의 상승률을 기록
 - 1~6월(상반기) 실질임금 또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3.1%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월, 2005=100.0, %)

	2006				2007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1~6월(상반기)	
						5월	6월		
임금총액	2,487 (5.9)	2,400 (5.6)	2,559 (4.3)	2,722 (7.0)	2,626 (5.6)	2,524 (5.2)	2,382 (5.4)	2,673 (4.8)	2,575 (5.4)
정액급여	1,839 (6.6)	1,856 (7.0)	1,878 (6.6)	1,923 (6.6)	1,952 (6.2)	1,974 (6.4)	1,972 (6.2)	1,986 (6.3)	1,963 (6.3)
초과급여	149 (5.1)	160 (6.5)	157 (6.7)	163 (3.5)	156 (4.7)	167 (3.9)	170 (3.4)	169 (5.5)	161 (4.3)
특별급여	499 (3.8)	384 (-0.7)	524 (-4.0)	636 (9.2)	517 (3.7)	383 (-0.1)	241 (0.8)	518 (-1.0)	450 (2.1)
실질임금지수	102.0 (3.8)	97.8 (3.3)	103.4 (1.7)	110.3 (4.7)	105.5 (3.4)	100.3 (2.7)	94.7 (3.0)	106.3 (2.2)	102.9 (3.1)
소비자물가지수	101.4 (2.1)	102.1 (2.2)	102.9 (2.5)	102.6 (2.2)	103.5 (2.1)	104.6 (2.4)	104.6 (2.3)	104.6 (2.5)	104.0 (2.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